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현대차 협상 타결

오늘 노사민정협의회에 보고...내일 투자 조인식
전권 위임받은 광주시 유연하게 의견 접근 결실
일자리 1만2천여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현대자동차와 극적인 협상 타결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격에 올랐다. 직접고용 1,000명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1만 2,000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광주지역 경제활성화

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2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선진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치고 5일 최종 협상(안)에 대해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현대차와 최종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6일째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투자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

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000㎡)을 짓고 이 공장의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000여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지지부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협상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협상 분위기는 반전됐다. 현대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속도를 낼 예정인 접근을 이뤘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을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한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황애란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4일 오전 북구 광주시교육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8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앞장 설것을 결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수능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

오늘 성적표 배부...국어 점수가 당락 좌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주요 과목으로 불리는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전년도 수능 대비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2019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통지표가 5일 배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2019 수능' 영역별 등급컷은 1등급은 국어영역이 132점, 수학 가형 126점, 수학 나형 130점, 영어 90점이다.
탐구영역 1등급 등급컷은 사회탐구가 63-67점, 과학탐구가 64-67점, 직업탐구가 63-72점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4-80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만점자 비율은 국어영역 0.03%, 수학 가형 0.39%, 수학 나형은 0.24%다. 국어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총 148명으로 작년의 5% 수준으로 떨어졌다.
1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2만4,723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 또한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이 5.3%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불수능' 논란에 대해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국어영역 31번 문

항과 관련해 "향후에는 지문의 길이,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를 면밀히 검토해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학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발표에 맞춰 4일 홈페이지에 2019 수능 등급별 커트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어 1등급은 원점수 기준 84점, 영어는 90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8점이다.
한편, 응시자들의 개별 성적표는 5일 학교와 교육청에 배부될 예정이다. 출제된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성적 통지표를 받지 못한다. /서미애 기자

서민들 '겨울나기' 더 버겁다

생활물가 작년보다 1.7%↑
등유·외식물가 등 줄인상

광주·전남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서민 연료인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며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7로 전월대비 0.8% 하락했으나 전년대비 1.6% 소폭 상승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1.1% 하락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일부만 반영되면서 전년대비 휘발유는 6.0% 경유는 10.1% 상승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서민연료 등유는 14.5%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등유 등 석유류가 전년대비 7.0%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물가를 0.38% 끌어올렸다.
농산물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5.6% 하락했으나 1년전과 비교해 3.0% 올랐다.
자세한 품목을 살펴보면 당근(65.1%), 파프리카(48.6) 등 채소류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오르면서 서민 외식물가도

줄줄이 올랐다. 특히 갈비탕과 해장국이 각각 10.7%, 6.4% 큰 폭으로 상승하며 외식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어 치킨(6.4%), 김치찌개백반(4.8%), 구내식당식사비(4.5%)가 1년전과 비교해 상승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지수 또한 104.81로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8% 하락한 수치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7% 상승했으며 전월대비 1.4% 하락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대비 각각 5.9%, 10.1% 올랐다. 특히 등유는 18.4% 큰 폭으로 올랐다. /송수영 기자

한전공대 내년 1월 부지 최종 확정

설립지원위, 2022년 부분 개교...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한전공대가 융복합적 에너지 연구와 창업 클러스터 모델의 편제정원 1,000명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된다. 부지는 내년 1월 최종 확정된 뒤 오는 2022년 부분 개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 추

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설립지원위원회 구성은 균형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실 및 관계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주로 한전공대 설립과정에 관한 사항과 한전공대 설립과정의 집행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설립지원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균형위 기획담당장을 위원장으로, 본위원회 참여기관 국

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한전은 한전공대를 융복합적 에너지 연구와 창업중심 클러스터 모델형의 편제정원 약 1,000명 수준의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전은 또한 2022년 3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입지선정과 관련해 한전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 관련 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해, 단계별로 의사결정 역할 및 권한을 분리,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2019 First Gwangju · Jeonnam CEO Economic Academy

2019 제1기 전남매일 광주/전남 CEO 경제아카데미 초대합니다

성공의 디딤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남매일은 2019년 3월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하는 「제1기 전남매일 광주·전남 CEO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국내외 현안을 함께 탐구하면서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에 지역 리더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윤종규
KINCOM(주) 대표이사

박상우
한국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박철홍
골드레이크(주) 대표이사

김 한
KINCOM(주) 대표이사

김성환
발전(주) 대표이사

김성녀
중앙대학교 교수

이상윤
이베이트(주) 대표이사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강의장소**
라마다 프라자 호텔
- **강의시간**
매주월요일 19:00 ~ 21:00 (18:00 호텔식 식사)
- **교육기간**
2019년 3월 11일 ~ 2019년 12월
-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1. ~ 2019. 02. 28
- **모집인원**
00명 (선착순)

M 전남매일 문의 및 접수처 : 전남매일 사업국 062) 720-1011